기록에 욕심 없는 함지훈 "트리플더블 한번 못했네"


현대모비스 함지훈

울산 현대모비스의 베테랑 함지훈(36)은 국내에서 가장 영리한 선수로 손꼽힌다. 빅맨으로서는 크지 않은 198cm의 신장에 운동능력도 평범하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타고난 센스와 영리함에 그 이유가 있다.

함지훈의 영리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록은 바로 어시스트다. 그는 2007~2008시즌 데뷔 이래 2008~2009시즌(경기당 평균 2.9어시스트)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소 평균 3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빅맨은 득점·리바운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지훈은 어시스트까지 능한 만능선수지만, 정작 데뷔 이래 트리플 더블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 트리플 더블에 근접한 기록을 남긴 경기만 있을 뿐이다. 11일 창원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8점·11리바운드·7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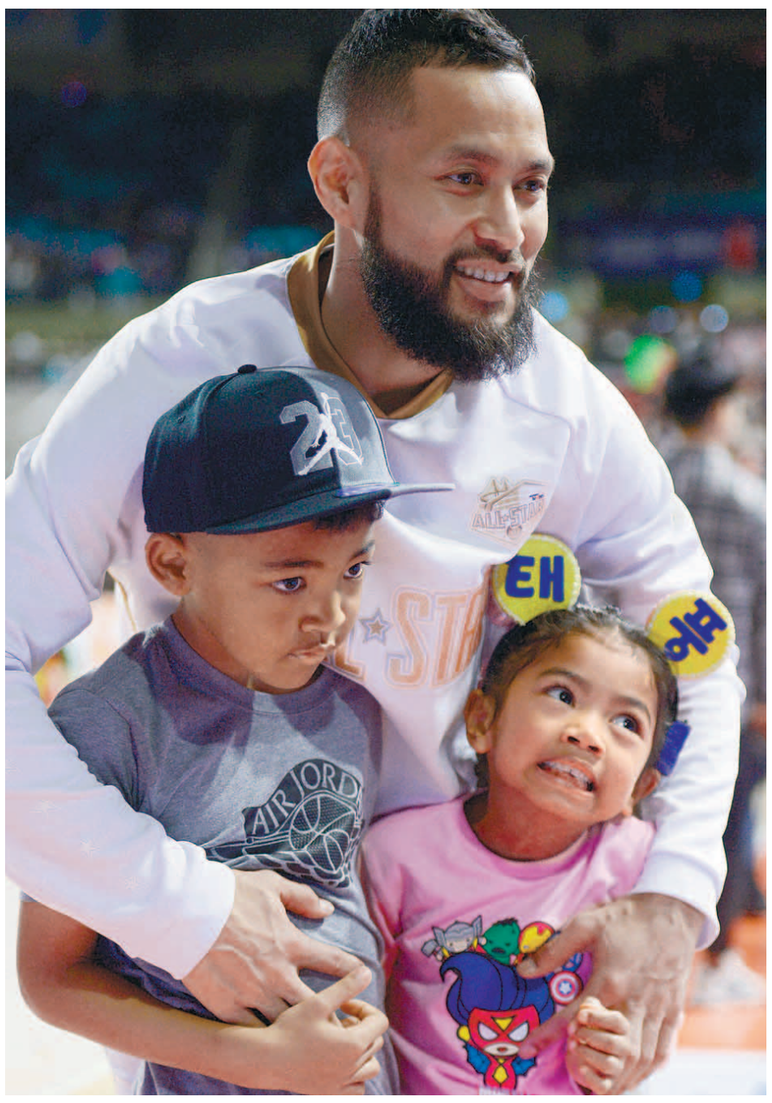
함지훈은 평소 기록에 무신경한 편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는 "트리플 더블을 못했다. 한 번(2009년 12월 12일 전주 KCC전 21점·11리바운드·9어시스트) 도움 1개가 모자라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진짜 아쉬웠다. 우리 팀은 그런 기록을 알려주질 않아서…"라며 웃었다. 이어 "기록에 신경 쓰면서 하면 오히려 경기가 잘 안 풀리더라.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18일·24일 D-리그 경기시간 변경

KBL은 "18일과 24일 연세대학교 체육관(신촌캠퍼스)에서 개최되는 2019~2020 D-리그 경기 시간을 중계방송 사정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오후 5시와 7시로 예정된 경기 개시 시간을 오후 1시와 3시로 각각 변경해 진행한다. 18일에는 창원 LG-전주 KCC전, 서울 SK-울산 현대모비스전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인천 전자랜드-현대모비스전, KCC-LG전이 펼쳐진다.

'마지막 시즌' 치르는 SK 전태풍의 진심

"KBL 선수로 산 10년…충분히 행복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심한 서울 SK 전태풍(위)은 마지막 불꽃을 누구보다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여전히 좋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의 결정에 번복은 없다. 사진은 2019~2020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아들, 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전태풍. 스포츠동아DB

"KCC에서 은퇴하고 싶었는데… 더 뛰고 싶지만 현실 직시해야"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서울 SK 전태풍(40)은 "진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지인이나 팬들로부터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은퇴를 번복할 마음은 없다.

●KBL에서의 희로애락 10년

전태풍은 2009년 귀화혼혈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전주 KCC의 지명을 받아 10시즌을 KBL에서 뛰었다. 10년간 KBL에서 뛰는 동안 희로애락을 겪었다. 2010~2011시즌 KCC에서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한편, 두 번째 팀이었던 고양 오리온에서는 팀에 적응하지 못해 트레이드를 통해 부산 KT로 이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KCC에 입단, 친정팀에서의 은퇴를 꿈꿨으나 지난해 등 떠밀리 듯 FA시장에 나와 어렵게 SK와 계약을 체결했다.

코트 밖에서는 어린시절 동네 친구이자 아내인 미나 터너 씨를 만나 결혼, 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전태풍은 "한국은 내게 안식처였다. 대학(조지아 공대) 졸업 후에 유럽에서 프로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싶었다. 한국 귀화를 해서 KBL에서 뛰고 가정을 이룬 시간이 내게는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현실 인정, 이제 진짜 그만할 거다"

KBL에서 프로경력을 이어오는 동안 화려한 개인기술로 리그 정상급 가드로 활약해온 그였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1980년생인 그는 우리나이로 어느 덧 41세의 노장이 됐다. 은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더 뛰고 싶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선수로서 내 가치가 높지 않다. 대부분의 팀이나 감독님들은 나 같은 노장보다 젊은 선수들을 선호한다"며 "그게 아쉽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다.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KCC에서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때 문경은 감독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무 기뻤다. SK랑 계약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계약 당시를 회상했다.

전태풍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13일까지 28경기에 출전, 평균 11분 가량을 뛰면서 3.5점·1.9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팀의 주축인 김선형(32)이 부상을 당해 출전시간이 늘어났다. 기록보다는 경기에 출전해 농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마지막을 좋은 팀에서 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SK 구단, 동료들에게 감사한다. 농구로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3~5위 1경기차…'3위싸움' 끝까지 봐야 안다

다시 점프볼 'WKBL' 관전포인트

신한 대체외인 서덜랜드 활약 변수
삼성생명은 박하나 합류 시점 중요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여자농구대표팀의 2022도쿄올림픽 최종예선전으로 인한 휴식기를 마치고 16일 부천 하나은행-청주 KB스타즈전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팀당 9~10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정규리그 우승과 플레이오프(PO) 진출을 위한 3위 싸움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치열한 2파전의 선두경쟁

KB스타즈가 16승5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산 우리은행은 15승5패로 2위다. 우리은행이 한 경기를 덜 치러 사실상 격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팀은 20일 시즌 5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이 경기 결과가 정규리그 우승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KB스타즈는 강아정, 김민정, 심성영, 박지수 등 대표팀 차출이 많았지만 4명 모두 큰 부상 없이 돌아왔다. 대표팀에서 출전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었던 박지수가 힘든 시간을 보내 심신이 지쳐있지만 어느 정도 추스를 시간은 있다. 하나은행전부터 정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전력 공백이 생겼다. 김정은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다. 김정은은 귀국 후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부상 회복을 위해서다. 당분간은 김정은의 출전이 쉽지 않아 대체자원으로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김정은의 팀 합류 이전까지 잘 버텨야 하는 우리은행이다.

●선두권 못지않은 3위 싸움

3위 경쟁은 더 치열하다. 인천 신한은행(9승12패)이 3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4위 하나은행(8승12패)에 0.5경기차로 쫓기고 있다. 5위 용인 삼성생명(8승13패)도 1경기차로 신한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세 팀이 PO 진출 마지노선인 3위를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휴식기에 전력 변화가 생긴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행보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휴식기 이전까지 국내선수들이 맹활약하며 3위를 지킨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선수를 교체했다. 발목 부상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엘라나 스미스 대신 WKBL리그 경험이 있는 아이샤 서덜랜드를 영입했다. 서덜랜드가 상대 외국인선수와 대등한 싸움만 해준다면 3위 수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시즌 들어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을 입어 전력을 풀가동하지 못하고 고전했다. 한 때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김한별, 배혜윤이 대표팀에서 부상 없이 돌아왔다.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한 윤예빈은 재활이 순조로워 조만간 팀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무릎이 좋지 않은 박하나는 팀 합류 시점이 미지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경기 결과

프로배구 〈12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22	18	4	48	1959	1851	5승
2	GS칼텍스	22	14	8	43	1957	1832	1패
3	흥국생명	22	10	12	37	2025	1900	6패
4	인삼공사	23	11	12	31	2172	2223	4승
5	도로공사	22	7	15	21	1885	2008	4패
6	IBK기업은행	23	7	16	21	1898	2082	1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디우프	인삼공사	746	①	양효진	현대건설	0.87
②	러츠	GS칼텍스	550	②	김세영	흥국생명	0.73
③	어나이	IBK기업은행	500	③	한수지	GS칼텍스	0.66
④	박정아	도로공사	417	④	러츠	GS칼텍스	0.65
⑤	양효진	현대건설	368	⑤	한송이	인삼공사	0.61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우리카드	28	21	7	58	2534	2326	1승
2	대한항공	28	20	8	56	2534	2362	6승
3	현대캐피탈	27	16	11	49	2442	2346	1승
4	OK저축은행	27	13	14	40	2281	2350	1승
5	삼성화재	27	10	17	33	2259	2356	7패
6	KB손해보험	28	10	18	30	2560	2646	1승
7	한국전력	27	6	21	22	2220	2444	6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비예나	대한항공	721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0.91
②	가빈	한국전력	578	②	김규민	대한항공	0.73
③	펠리페	우리카드	577	③	최민호	현대캐피탈	0.69
④	나경복	우리카드	415	④	김홍정	KB손해보험	0.65
⑤	송명근	OK저축은행	408	⑤	박상하	삼성화재	0.59

남자프로농구 〈12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41	26	15	0.634	0	3승
1	DB	41	26	15	0.634	0	1승
3	인삼공사	40	24	16	0.600	1.5	3패
4	KCC	40	22	18	0.550	3.5	1패
5	KT	41	21	20	0.512	5	3승
6	전자랜드	40	20	20	0.500	5.5	3패
7	현대모비스	40	18	22	0.450	7.5	2승
8	삼성	41	18	23	0.439	8	1패
9	LG	41	16	25	0.390	10	1패
10	오리온	41	12	29	0.293	14	5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라렌	LG	21.2	①	허훈	KT	7.2	①	라건아	KCC	12.5
②	미네라스	삼성	20.7	②	김시래	LG	4.8	②	라렌	LG	10.8
③	워니	SK	20.6	③	이정현	KCC	4.5	③	오누아쿠	DB	10.3
④	라건아	KCC	20.5	④	양동근	모비스	4.3	④	워니	SK	10.3
⑤	브라운	인삼공사	18.2	⑤	천기범	삼성	4.3	⑤	할로웨이	전자랜드	9.5

NBA 〈13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토론토	40	15	1	밀워키	46	8	1	마이애미	35	19
2	보스턴	37	16	2	인디애나	32	23	2	올랜도	24	31
3	필라델피아	34	21	3	시카고	19	36	3	워싱턴	20	33
4	브루클린	25	28	4	디트로이트	19	38	4	샬럿	18	36
5	뉴욕	17	38	5	클리블랜드	14	40	5	애틀랜타	15	41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덴버	38	17	1	LAL	41	12	1	휴스턴	34	20
2	유타	36	18	2	LAC	37	17	2	댈러스	33	22
3	오클라호마	32	22	3	피닉스	22	33	3	멤피스	28	26
4	포틀랜드	25	31	4	새크라멘토	21	33	4	샌안토니오	23	31
5	미네소타	16	37	5	골든스테이트	12	43	4	뉴올리언스	23	31

•경기결과

클리블랜드	127 - 105	애틀랜타	댈러스	130 - 111	새크라멘토
인디애나	118 - 111	밀워키	샬럿	115 - 108	미네소타
워싱턴	114 - 96	뉴욕	올랜도	116 - 112 (연장)	디트로이트
유타	116 - 101	마이애미	멤피스	111 - 104	포틀랜드
LAL	120 - 116 (연장)	덴버	피닉스	112 - 106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101 - 91	토론토			

NHL 〈13일〉

•경기결과

보스턴	4 - 1	몬트리올	LA	5 - 3	캘거리
밴쿠버	3 - 0	시카고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16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하나은행	〈부천실내〉	KB스타즈

오후5시, IB스포츠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14일	대한항공	〈인천계양〉	KB손해보험
	오후7시, KBSN스포츠		
15일	삼성화재	〈대전충무〉	한국전력
	오후2시, SBS스포츠		
16일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우리카드
	오후2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15일	현대건설	〈수원체육관〉	인삼공사
	오후4시, KBSN스포츠		
16일	흥국생명	〈인천계양〉	도로공사
	오후4시, KBSN스포츠		

오늘의 토토 〈14일〉

•배구토토 매치 23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2.14 (금) 19:00	대한항공 vs KB손보	인천계양체육관